

반사실적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양보의 의미와 척도상의 함축

임 동 식

서울대학교

semiosis@linguist.snu.ac.kr

1. 서론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적으로는 성립하는 조건문의 추론 과정이 반사실적 조건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von Stechow 2001에서 재인용).

(1) 전건 강화의 오류failure of strengthening the antecedent

a. If kangaroos had no tails, they would topple over. \Rightarrow

b. If kangaroos had no tails but used crutches, they would topple over.

(2) 가설적 삼단논법의 오류failure of the hypothetical syllogism

a. If Hoover had been a communist, he would have been a traitor. &

b. If Hoover had been born in Russia, he would have been a communist. \Rightarrow

c. If Hoover had been born in Russia, he would have been a traitor.

(3) 대우의 오류failure of contraposition

a. (Even) If Goethe hadn't died in 1832, he would still be dead now. \Rightarrow

b. #If Goethe were alive now, he would have died in 1832.

다른 한 편 반사실적 조건문과 가정법 조건문subjunctive conditional, 그리고 직설법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 사이의 의미 차이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Karttunen and Peters 1979에서 인용),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가정법 조건문의 전건이 반드

시 반사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법 조건문과 직설법 조건문 사이의 차이가 단지 형태적인 것밖에는 없는 것인지, 또한 가정법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4) If Mary were allergic to penicillin, she would have exactly the symptoms she is showing.

또 한 가지 문제는 양보 반사실적 조건문Concessive Counterfactual(이하 CC)과 절대 반사실적 조건문Absolute Counterfactual(이하 AC) 사이의 구별이다.¹⁾ 반사실적 조건문들 중 어떠한 것들은 even 등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로 더욱 쉽게 해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예문을 보면 (6)은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편이 자연스러운 반면, (5)에서는 양보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 (5) If Charlie had quit smoking next summer, he would have felt healthier. (Ippolito 2003)

- (6) If it had rained, it would not have rained heavily. (Jackson 1986)

이 글은 반사실적 조건문이 보여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능세계 의미론에 입각한) 통합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CC의 의미적인 특성을 AC와 대조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구문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차이점을 두 구문의 전제의 차이와, CC가 도입하는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으로 설명하고, 2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이 틀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보인다. 4장은 일종의 추가적 언급으로, CC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두 가지 종류의 CC가 앞에서 제시한 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되는지 살펴본다. 특히 이 장은 Bennett(1982)에서 제기된, standing-if와 introducing-if의 구분에 관해 주로 다룬다. 5장에서는 전체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아있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2. CC의 의미적 특성

1) 이 글에서는 절대 반사실적 조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양보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반사실적 조건문을 지칭하기로 한다.

2.1. 대우의 오류

(반사실적) 조건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오류는 이제까지 주로 가능세계 의미론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Stalnaker 1968, Lewis 1973, von Fintel 2001, Schlenker 2003 등). 비록 가능세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논의들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러한 세 가지 추론 유형이 일상언어에서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설명이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만 논의를 집중한 나머지, 세 가지 오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1)-(3)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자.

(1) b. If kangaroos had no tails but used crutches, they would topple over.

(2) c. If Hoover had been born in Russia, he would have been a traitor.

(3) b. #If Goethe were alive now, he would have died in 1832.

추론의 성립 여부를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면, (1b)나 (2c)는 문장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3b)의 경우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전건과 후건이 모순 관계에 놓인다는 문제가 생긴다. 괴테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1832년에 죽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6)과 같은 조건문을 (6')과 같은 대우 문장으로 바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순 관계가 나타난다. 즉, 비가 오면서 동시에 오지 않을 수는 없다.

(6') #If it had rained heavily, it would not have rained.

이러한 문제점은 (3b)와 (6')을 직설법 조건문으로 바꾸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3b') #If Goethe is alive, he is dead.

(6'') #If it rained heavily, it did not rain.

그러나 모든 반사실적 조건문의 대우 구문이 이러한 모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5)를 대우 구문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이러한 모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5') If Charlie had not felt healthier, he would not have quit smoking next summer.

(5')을 직설법 조건문으로 바꿔도 문장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5'') If Charlie did not feel healthier, he did not quit smoking.

이 글은 이러한 차이점이 CC와 AC의 의미 차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6)에서 우리는 양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구문인 (3)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even이라는 표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3)과 (6)은 양보 구문으로 해석되었을 때 의미가 훨씬 자연스럽다. 반면 (5)에서는 그러한 양보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양보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2c)와 같은 문장을 대우로 고쳐 봐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2c')과 같은 문장에서는 전건과 후건 사이의 모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2c') If Hoover had been a traitor, he would have born in Russia.

2.2. 전건의 거짓 여부

일반적으로 가정법 조건문은 전건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인 조건문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가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Karttunen and Peters(1979)는 앞에서 살펴본 (4)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면서, 가정법 조건문에서 전건의 거짓은 항상 그러한 전제presupposition가 아니라 상례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CC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지만, even에 대한 이들의 분석을 미루어 짐작하여 볼 때, 이들은 CC가 특정한 조건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척도상의 함축만 불러오는 것일 뿐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들의 생각에 따르면, CC의 전건의 거짓 역시 일반적인 가정법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상례적인 함축에 불과하며, CC는 단지 이러한 상례적인 함축에 척도상의 함축을 추가할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Even John likes Bill이라는 문장은 - even의 초점focus이 John일 경

우 - 다음의 두 가지를 상례적으로 함축한다: 1) John 이외에도 Bill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2) John은 그 중에서 가장 Bill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함축은 이 예문에서처럼 even의 영향권scope이 하나의 명사구가 아니라 if 절 전체에 걸치는 경우, 즉 even if의 양보절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CC가 척도상의 함축을 끌어들이는다고 보는 점에서 Karttunen and Peters(1979)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글은 CC가 척도상의 함축과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전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도입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즉, 척도상의 함축 이외에도, (3)에서는 피테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며, (6)에서는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3장에서 다시 다룬다.²⁾

2.3. 후건의 사실성

CC에서는 후건의 사실성factivity이 함축된다. (3)에서는 후건이, 즉 피테가 1832년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이 문장에 의해서 함축된다. 마찬가지로, (6)에서는 비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결코 많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

2) 과연 CC에서 전건의 거짓이 전제인지, 아니면 상례적 함축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단지 '전제로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선 많은 논의에서 '전제'와 '상례적 함축'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 일례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von Fintel(1999)은 Karttunen and Peters(1979)에서 '상례적으로 함축한다'고 한 문장을 '전제한다'로 인용을 하고 있으며, Kadmon(2001)에서도 '상례적으로 함축한다'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전제와 상례적 함축 사이의 엄밀한 구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적어도 이 논의에서는 이 둘 사이의 구분을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CC의 의미 해석 과정에서, 현실세계에서 전건이 항상 거짓임이 보장만 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지겠지만, von Fintel(1999)을 따라서 CC에서 전건의 거짓을 전제로 본다면, 다양한 조건문들의 전제가 되는 가능세계의 양화 양상을, CC의 척도상의 함축과는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even 고유의 의미 특성이 전제 때문인지, 상례적 함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Bennett(1982), Lycan(1991), Barker(1993), Barker(1994), Francescotti(1995) 등 참조. even에 관해 논의하면서 상례적 함축이라는 범주 자체를 부정하고 관련된 의미를 일종의 명제적 의미로 취급한 대표적인 논의에는 Bach(1999) 참조. even의 초점focus과 영향권scope을 정의한 논의로는 Karttunen and Peters(1979) 참조.

는 사실이 함축된다고 볼 수 있다. even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Bennett 1982).

(7) Even if the bridge were standing I would not cross.

(7)의 경우 화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함축됨을 알 수 있다.

반면 AC에서는 후건의 사실성이 반드시 함축되지는 않는다. Charlie가 실제로 더 건강해졌다고 느꼈다는 사실이 (5)에서 바로 함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c)와 같은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Hoover가 실제로 배신자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오히려 Hoover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AC에서는 후건이 참이라는 함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역시 AC와 CC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4. 요약

이상에서 우리는 AC와 CC의 의미 차이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대우 구문에서의 모순 관계 성립, 전건의 거짓이라는 전제의 도입, 후건의 사실성 함축. 이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의문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C에서의 전건의 거짓이 과연 전제인가, 아니면 Karttunen and Peters(1979)에서 주장되는 것과 같은 함축인가? 또한 대우 구문에서의 모순 관계와 후건의 사실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함축되는가? 과연 이러한 함축이 모든 CC에서 일어나는가? 서론에서 지적되었던 사실들이 어떻게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른 기존의 논의와 통합되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2장에서 언급된 AC와 CC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이 논문의 3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이 제시된다.

3. AC와 CC의 차이

3.1. 전제의 문제(1): 가정법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

CC의 의미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가장 타당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가정법 조건문이라는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양보의 의미라는 특성

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건문의 양보의 의미가 even if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양보의 의미를 even의 의미와 평행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Karttunen and Peters 1979, Dancygier 1998 등). CC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주목함으로써, CC가 어떠한 조건들을 전제로 도입하고, 어떠한 함축을 불러오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Karttunen and Peters(1979)에 대한 von Fintel(1999)의 비판을 보자. von Fintel(1999)의 관점에서 가정법 조건문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다음의 공식으로 요약된다.

(8) $p \cap C = \emptyset$ (p: 전건, C: common ground)

즉, 가정법 조건문 if p, q는 C에 p를 포함하는 세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한 세계 w에서 참이다.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전건이 사실인 (4)와 같은 가정법 조건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참이 아니다. Karttunen and Peters(1979)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9)와 같이 단순화된 조건을 가정법 조건문의 상례적 함축으로 제시한다. 이것을 von Fintel(1999)이 제시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면 (10)과 같이 된다.

(9) “If p then q” conventionally implicates:

- a. Indicative mood: “It is epistemically possible that p”
- b. Subjunctive mood “It is epistemically possible that $\sim p$ ”

- (10) a. indicative conditional: $p \cap C \neq \emptyset$
 b. subjunctive conditional: $\sim p \cap C \neq \emptyset$

von Fintel(1999)의 해석에 따르면 C에 p가 거짓인 세계가 존재할 경우 가정법 조건문은 참이다. 이와 반대로 직설법 조건문은 C에 p가 참인 세계가 존재할 경우 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4)와 같은 예문이 (4')과 같은 직설법 형태와는 의미가 달라지는지 설명하여 주지 못한다.

(4') #If Jones took arsenic, he shows just exactly those symptoms which he does in fact show.

만약 (9)와 (10)의 공식이 가정법 조건문과 직설법 조건문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4)의 상황에서 (4')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9)와 (10)은 가정법 조건문과 직설법 조건문의 상보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4')이 아니라 (4)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von Fintel(1999)은 Stalnaker(1975)의 도식을 약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건 (9a)는 p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들 중 일부만 C에 포함되어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다. 또한 von Fintel(1999)에 따르면 직설법/가정법의 구분은 p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문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조건문이 양화하는 가능세계 전체가 C의 부분집합임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가정법 조건문은 조건문이 양화하는 가능세계가 C의 부분집합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11) a. default: $D(w) \subseteq C$
- b. subjunctive: $D(w) \not\subseteq C$

von Fintel(1999)에서 공식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설명에 따르면 반사실적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하는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1) c. counterfactual: $D(w) \cap C = \emptyset$

3.2. 전제의 문제(2): NPI

(11c)에서 우리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현실세계에서 p가 거짓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법 조건문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CC가 언급될 때 항상 p가 현실세계에서는 거짓임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even의 의미를 NPI와 평행하게 해석하여 보려고 한다.³⁾ 이는 even의 의미, 또는 CC의 양보의 의미를 NPI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에서 지적된(Linebarger 1987, Kadmon and Landman 1993, Chierchia 2002 등), NPI의 영역 확장domain expansion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 시

3) even이 척도상의 함축을 불러온다고 본다면, 척도상의 함축과 NPI를 평행하게 해석한 기존의 논의들이 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Chierchia(2002) 참조.

도이다.

NPI의 영역 확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문제삼은 대표적인 논의는 Kadmon and Landman(1993)이다. 이 논의는 *any*의 의미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며, 이에 기반하여 *any*의 NPI의 의미와 free choice item의 의미를 일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12) *any*의 의미적 속성(Kadmon and Landman 1993)

- a. *any* CN = the corresponding indefinite NP a CN with additional semantic/pragmatic characteristics(widening, strengthening) contributed by *any*
- b. WIDENING
In an NP of the form *any* CN, *any* widen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on noun phrase(CN) along a contextual dimension.
- c. STRENGTHENING
Any is licensed only if the widening that it induces creates a stronger statement, i.e., only if the statement on the wide interpretation \Rightarrow the statement on the narrow interpretation.
- d. LOCALITY
Strengthening is to be satisfied by the 'local' proposition that *any* occurs in.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widening이다. Kadmon and Landman(1993)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예로 들어 *any*의 widening effect를 설명한다.

- (13) a. I don't have potatoes.
b. I don't have any potatoes.

(13a)는 나에게 지금 감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 때 감자는 단순히 일반적인 감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13b)는 일반적인 감자뿐만 아니라 썩은 감자나 싹이 나서 못 먹는 감자들마저도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any*의 사용으로 인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영역이 전형적인 감자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비전형적인 감자까지도 포함하는 상황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y*와 같은 NPI와 *even*을 평행하게 분석한다면, *even*의 의미도 *any*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영역확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ny*와 같은

방식으로 영역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even의 영역확장 양상을 보이기 위해 2.2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14) a. John likes Bill.
- b. Even John likes Bill.

(14b)에서 even의 초점이 John일 때 (14a)와 그 의미를 비교해 보자. (14a)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John(혹은 Bill)이다. 우리는 John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Bill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14b)에서는, 2.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함축, 즉 John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Bill을 좋아하며, John은 가장 Bill을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함축이 생겨난다. even에 관해 이루어졌던 이제까지의 논의는 even의 이러한 함축이 과연 진짜로 함축인지, 아니면 전제인지 구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감이 있다. 이 글의 주장은 even의 함축과 전제를 구분하자는, 즉 even이 불러오는 척도상의 함축 scalar implicature과, 그 함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며, even의 전제를 even의 초점에 놓여 있는 대상 이외의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다른 대상들로의 영역확장으로 보자는 것이다. 영역확장은 물론 초점이 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even의 초점이 개체가 되는 경우 영역확장은 개체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며, 동사구가 되는 경우 영역확장은 동사구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 양보의 의미를 보이는 even if 역시, if 절 전체가 even의 초점에 온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영역확장은 if절에 대응하는 명제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

CC 역시 even if와 양보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확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떠한 식의 영역확장이 이루어지는지 밝히는 일이다. 임의의 CC를 $p \square \rightarrow_c q$ 라고 하자.⁴⁾ even의 의미적 특성을 마찬가지로 CC에 적용하면, p는 q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가장 적은 명제가 된다. p보다 q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명제들의 집합을 $\Sigma_q' = \{p_1, p_2, \dots\}$ 라고 정의하자.⁵⁾ 영역확장은 이들 명제를 향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양보 의미 도입에 의한 영역확장 때문에 이 Σ_q' 은 C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CC 역시 반사실적 조건문이기 때문에 $\{w: w \text{는 } p \text{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 \not\subseteq C$ 이다. 또한 p가 q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sim p$ 는 p보다는 q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4) 반사실적 조건문을 $\square \rightarrow$ 로 표기하는 것은 Lewis(1973)을 따른다. 아래첨자 c는 이 반사실적 조건문이 양보 조건문임을 나타낸다.

5) 아래에서 Σ_q 가 다시 정의되어 쓰이기 때문에 Σ_q' 이라고 쓴다.

이다. 그렇다면 (영역확장에 의해) $\sim p \in \Sigma_q'$ 이고, $\{w': w' \text{은 } \sim p \text{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 \in C$ 가 된다.⁶⁾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11)의 공식에 다음과 같이 (11d)를 추가시키면, 다양한 조건문들이 도입하는 전제들을 형식화할 수 있게 된다.

- (11') a. default: $D(w) \subseteq C$
 b. subjunctive: $D(w) \not\subseteq C$
 c. counterfactual: $D(w) \cap C = \emptyset$
 d. CC: $D(w) \cap C' = \emptyset$, 이 때 $C' \supset C \vee \{w: q \text{를 참이 되게 할 가능성이 } p \text{보다 높은 명제들 } \Sigma_q' \text{이 참이 되는 세계 } w\}$

즉 $p \Box \rightarrow_c q$ 에 의한 영역확장은 C 에서 일어나는데, 이 때 앞에서 정의한 Σ_q' 이 참이 되는 세계들이 C 에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CC이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p \Box \rightarrow_c q$ 와, Σ_q' 에 속한 나머지 명제들이 q 를 참이 되게 할 가능성 사이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CC의 양보적 의미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3.3. CC와 척도상의 함축

양보의 의미를 척도로 해석하는 관점은 이미 정대호 외(2002), Dancygier(1998), Lee et al.(2000), Lee(2004)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CC 역시 가능성 척도를 도입한다고 보고, Lee et al.(2000)의 체계를 이용해서 CC가 도입하는 가능성 척도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여 보려고 한다:

- (15) CC의 가능성 척도likelihood scale는 다음과 같은 순서 삼중체triple $\langle \Sigma_q, \leq, q \rangle$ 로 정의된다:
 (i) Σ_q 는 p 가 참일 때 q 가 참일 가능성이 높은 명제들 p 의 집합이다.
 (ii) Σ_q 는 두 명제 p_1, p_2 에 대해, p_1 이 참일 때보다 p_2 가 참일 때 q 가

6) $\{w: w \text{는 } p \text{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 \notin C$ (①)이므로 당연히 $\{w': w' \text{은 } \sim p \text{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 \in C$ (②)라고 하면 논의가 훨씬 간단해진다. 굳이 여기에서 영역확장이라는 복잡한 기제를 사용하여 $\sim p$ 가 참인 세계가 전제가 CC의 전제가 됨을 보인 것은 ①이 참이라고 해서 ② 역시 참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현실세계가 명제들의 최대 일관적인 집합maximally consistent set(Hughes and Cresswell 1996)이 아닌 한, 가능한 모든 명제가 현실세계에서 진리치를 부여받는다 고 보장할 수는 없다.

더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p_1 \leq p_2$ 인 부분 순서 집합partially ordered set이다.

CC의 전건은 후건에 대한 가능성의 척도에서 하단 극한lower bound에 위치한다. 즉, CC의 전건은 후건이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조건이 된다. 명제들의 집합 Σ_q 를 선형 순서 집합linearly ordered set이 아니라 부분 순서 집합으로 본 이유는 여러 개의 명제들 사이의 가능성 정도가 반드시 선형으로 배열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두 명제 p_1, p_2 가 q 를 실현시킬 가능성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 척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성 척도가 CC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앞에서처럼 CC를 $p \square \rightarrow_c q$ 라고 하자. 실현되었듯이 이 CC는 $\sim p$ 를 전제로 한다. 즉 기준세계evaluated world (혹은 현실세계)에서 p 는 거짓이다. 이 때 전건 p 는 가능성 척도 Σ_q 에서 하단 극한에 위치한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제된 부정 $\sim p$ 는 척도에서 p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p \leq \sim p$ 이다. (15)의 척도 정의에 따라, CC는 $[p \rightarrow q] \rightarrow [\sim p \rightarrow q]$ 를 함축한다. $\sim p$ 는 참으로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함축이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 q 는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CC의 후건의 사실성이 설명된다.

그렇다면 척도상의 함축에서 CC의 대우의 부자연스러움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p \square \rightarrow_c q$ 의 대우는 $\sim q \square \rightarrow_c \sim p$ 이다. 대우 명제 역시 CC이므로 $\sim p$ 의 실현을 위한 가능성 척도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척도에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sim q \leq q$ 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5)의 척도 정의에 따라 이 대우 명제는 $[\sim q \rightarrow \sim p] \rightarrow [q \rightarrow \sim p]$ 를 함축한다. 그런데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함축에서 $[\sim p \rightarrow q]$ 와 $[q \rightarrow \sim p]$ 가 동시에 도출되기 때문에 $\sim p \equiv q$ 가 되며, 따라서 원래의 대우 명제에 $\sim p \equiv q$ 를 적용하면 $\sim q \square \rightarrow_c q$, 혹은 $p \square \rightarrow_c \sim p$ 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대우 명제는 사소하게trivially 참이 되며(그래서 화용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전건과 후건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처음에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현상도 이로써 설명이 된다.

정리하자면, CC에서 나타나는 양보의 의미는 CC가 가능성 척도를 도입하고, 이 가능성 척도가 척도상의 함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함축이 CC가 반사실적 조건문으로서 전제하는 명제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대우 명제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AC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의미 해석에 어떠한 가능성 척도도 도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CC에서 나타나는 함축 관계가 AC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CC의 대우 명제에서 나타나는 문제 역시 AC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CC의 두 가지 종류: Bennett(1982)를 중심으로

이상의 논의에서, 모든 CC가 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유형의 전체와 척도상의 함축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례로 Bennett(1982)은 (16)과 같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유형의 CC를 구분한다.

(16) a. standing-if:

Even if he drank an ounce of whisky, he would get drunk.

b. introduced-if:

Even if the bridge were standing, I would not cross.

standing-if는 (비록 even이 if 절의 제일 앞에 와 있기는 하지만) even의 영향권이 if 절의 일부분에만 미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6a)에서 even의 영향권은 if 절 전체가 아니라 ounce가 되기 때문에 (16a')으로 바뀌서 쓸 수 있다. 따라서 (16a)는 (16a'')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16) a'. If he drank even an ounce of whisky, he would get drunk.

a''. If he drank a gallon/oint of whisky he would get drunk.

반면 introduced-if는 even의 영향권이 if 절 전체에 미치는, 따라서 후건의 사실성이 함축되는 CC를 가리킨다. 화자가 급류가 흐르는 강 한 쪽에서 무너진 다리를 바라보며 (16b)를 발화할 경우 (16b)는 (16b')을 함축한다(이러한 함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위에서 살펴 보았다).

(16) b'. I will not cross.

위의 분류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앞에서 다룬 CC는 introduced-if에 관한 것이다. standing-if와 같은 구문들은, 비록 CC처럼 보이기 는 하지만 even의 초점이 if 절의 일부분에만 놓인다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CC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처음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CC들이 even과 같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시적인 표지가 없음에도 양보의 의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법 양보구문subjunctive concessive이 아니라) CC는 if 절 전체에 양보의 의미가 걸리는 구문이며, 따라서 standing-if와 같은 구문은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두 가지 종류, 즉 AC와 CC를 구분하고, 두 구문의 차이를 전제와 함축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를 형식화시켜서 어떻게 CC는 AC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CC로 보이지만 후건의 사실성을 함축하지 않는 조건문들은 Bennett(1982)의 standing-if로 보아, 양보 의미의 영향권이 if 절에만 걸리는 조건문으로 보고 CC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 전제의 확장과 척도상의 함축 사이의 연관성을 좀 더 엄밀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즉 영역확장을 척도상의 함축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단순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척도상의 함축이 일어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엄밀하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척도상의 함축을 순전히 화용론적인 문제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 셈인데,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AC의 전제와 함축에 대한 좀 더 엄밀한 규정, 그리고 선택함수라는 기제를 통한 CC의 의미 도출 등 역시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목들이다.

참고문헌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 조건, 『언어학』 22, 한국 언어학회.
- 정대호, 이정민, 남승호(2002), '-이나'와 '-도'의 의미론: 분류사구와 결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Bach, Kent(1999), The Myth of Conventional Implicatur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
- Barker, Stephen(1993), Even, Still, and Counterfactual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 Barker, Stephen(1994), The Consequent-Entailment Problem for *Even If*, *Linguistics and Philosophy* 17.
- Bennett, Jonathan.(1982), Even If,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 Chierchia, Gennaro(2002), Scalar Implicatures, Polarity Phenomena, and the Syntax/Pragmatics Interface, ms. University of Milan -

Bicocca.

- Dancygier, Barbara(1998), *Conditionals and Predi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n Fintel, Kai(1999), The Presupposition of Subjunctive Conditionals, in Uli Sauerland and Orin Percus(eds.)(1999), *The Interpretive Tract*,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5, Cambridge: MITWPL.
- von Fintel, Kai(2000), Conditional Strengthening: A Case Study in Implicature, ms., MIT.
- von Fintel, Kai(2001), Conterfactuals in the Dynamic Context, in Michael Kenstowicz(ed.)(2001), *Ken Hale: A Life in Language*, MIT Press.
- Francescotti, Robert M.(1995), Even: The Conventional Implicature Approach Reconsidered.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 Hughes, G. E. and M. J. Cresswell(1996), *A New Introduction to Modal Logic*, Routledge.
- Ippolito, Michela(2002), On the semantic composition of subjunctive conditionals, ms., MIT/Tuebingen.
- Ippolito, Michela(2003), Presuppositions and Implicatures in Counterfactual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3.
- Jackson, Frank(1986), *Conditionals*, Blackwell.
- Kadmon, Nirit(2001), *Formal Pragmatics*, Blackwell.
- Kadmon, Nirit and Fred Landman(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5.
- Karttunen, Lauri and Stanley Peters(1979), Conventional Implicature, in C-K Oh and D. Dinneen(eds.)(1979), *Syntax and Semantics* 11: *Presupposi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Kim, Yong-Beom(2002), On Concession, *Language and Information* 6.1.,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 Koenig, Ekkehard(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verlap and Neutralization, in Elizabeth Closs Traugott et al.(eds.)(1986),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ungmin(2004), Scalarity, Concessives, Implicature Suspension and Polarity, handout presented on Semantics Discussion Meeting, UCLA, FEB 2004.

- Lee, Chungmin, Daeho Chung, and Seungho Nam(2000), The Semantics of *amu N-to/-irato/-ina* in Korean: Arbitrary Choice and Concession, *Language and Information* 4.2.,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 Lewis, David(1973), *Counterfactuals*, Blackwell.
- Linebarger, Marcia(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
- Lycan, William G.(1991), Even and Even If,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 Menzies, Peter(2001), Counterfactual Theory of Causation, in Edward N. Zalta(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stanford.edu/entries/causation-counterfactual/>
- Nam, Seungho(1994), Another Types of NPI, in M. Kanazawa and C. Pinon(eds.), *Dynamics, Polarity, and Quantification*, CSLI, Stanford University.
- Nichols, Lynn(2003), Settling the Interpretation of Counterfactuals, ms., UC Berkeley.
- Sauerland, Uli(2003), Implicated Presuppositions, handout presented on Workshop on Polarity, Scalar Phenomena, Implicatures, University of Milan Bicocca, June 2003.
- Schlenker, Philippe (2003), Conditionals as Definite Descriptions (A Referential Analysis), to appear in Ruth Kempson and Klaus von Stechow(eds.), *Research on Language and Computation*, special issue on Choice Functions in Semantics. Also available in <http://www.linguistics.ucla.edu/people/schlenker/index.html>
- Stalnaker, Robert(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Studies in Logical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Monograph: 2., reprinted in Frank Jackson(ed.)(1991), *Conditionals*, Oxford.
- Stalnaker, Robert(1975),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a* 5, reprinted in W. L. Harper, R. Stalnaker, and G. Pearce(eds.)(1981), *Ifs*, Dordrecht: Reidel Publishing Company.